



1953
어린이날 시가행사를 마친 어린이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957
대통령과 내빈들이 참석한 어린이날 기념식

어린이날 행사

글 조보희 기자 · 사진 연합뉴스 DB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입니다. 해마다 어린이날에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1950~1960년대는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보여줄 공연을 연습하느라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로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변수가 생겼습니다. 어린이들이 늘 밝은 모습으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1959
어린이 건강실사에서 입상한 우량아들



1968
어린이날 가장행렬



1970
어린이날 카르네이션



1990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인파



2005
롯데월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들



2012
어린이대공원에서 신나게 달리는 어린이들



2019
어린이날을 맞아 함안평마장 관계자들이 말을 타고 정안리밭을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